거친 말에는 소도 움직이지 않는다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⑩ 친절한 말 : '황소 난디비살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은 매우 다르다.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심과 정성을 다해 말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말을 잘못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말의 진정성과 태도는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험악한 말이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너무 거칠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요즘에는 상대 당을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이런 어른들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요즘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욕설 경연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다.

몇 해 전 EBS에서 어느 학교를 찾아가 욕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지 실험한 적이 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이 빠지니까 어색해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오는 상황도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의 욕설이 생활화된 것이다. 어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기분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쥐에게 사람의 침전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이었다. 인간이 평소 말할 때는 무색의 침전물이 나오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분홍색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욕할 때는 갈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모아 쥐에게 투여했더니 곧바로 죽고 말았다. 이처럼 욕설은 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해로운 물질이었다.

불교에서도 악구(惡口), 즉 욕설이나 험한 말을 매우 경계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불교 동화를 찾아보았더니, '난디비살라 자타카(Nandivisāla Jātaka)'가 있었다. 부처님은 평소 싸움과 욕설을 자주 하는 여섯 명의 비구를 불러 거친 말을 하면 축생도 싫어한다면서, 자신이 황소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간다라국에서 황소로 태어난 난디비살라에겐 매우 친절하고 자상한 브라만 출신의 주인이 있었다. 그는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한 어린 황소를 구해 마치 친아들처럼 정성껏 키웠다. 어느덧 힘과 지성을 모두 갖춘 성년 황소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마을 부자에게 가서 나의 황소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대를 끌 수 있다고 말하고 내기를 하십시오."

황소의 말에 따라 주인은 부자에게 제안을 했고, 그는 세상에 그런 황소가 어디 있냐면서 내기를 받아들였다. 내기에 걸린 돈은 천금이나 되는 거액이었다. 브라만은 백 대의 수레에 모래와 자갈, 돌을 한가득 싣고 황소를 목욕시킨 다음 그 위에 올라탔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진 탓인지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면서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기꾼아, 가자. 사기꾼아, 가자."

친절하던 평소의 모습과 달리 주인이 폭언을 쏟아붓자, 이에 상처받은 황소는 발을 땅에 붙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내기에서 진 브라만은 큰 재산을 잃고 말았다. 울고 있는 주인에게 다가가 황소가 말했다.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물을 부수거나 누구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에 대소변을 눈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까?"

주인은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황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사과를 받은 황소는 주인에게 이번에는 내기 돈을 2천금으로 올리라고 말했고 마을 부자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 다시 시합이 이어지고 100대의 수레를 연결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착하고 소중한 내 소야, 가자. 착하고 소중한 내 소야, 수레를 끌어라."

폭언 듣고 움직임 멈춘 황소 이야기
욕설 잦은 여섯 비구에 전한 가르침
옳고 필요한 말도 친절해야 설득돼
거친 말은 결국 자신을 먼저 다치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품격

그러자 황소는 단번에 100대의 수레를 끌었고 내기에서 이긴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다. 친절한 말을 들은 황소 역시 이름에 어울리는 '큰(visāla) 기쁨(nandi)'을 주는 존재로 돌아왔다.

바보야, 문제는 친절한가야

황소 이야기를 읽으면서 최근 부끄러웠던 내 행동이 떠올랐다. 얼마 전 가까운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 적이 있다. 의견이 서로 달랐을 뿐인데, 마음의 중심을 잃고 큰소리로 말한 것이다.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느낀 점이 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논리적이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다. 부당한 권력을 앞세워 힘없는 개인을 괴롭힌다거나, 나치 혹은 파시스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목소리를 크게 내도 좋다. 불의를 향한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큰소리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동화에서 본 것처럼, 은혜를 갚으려는 황소조차 주인의 험악한 말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황소를 움직인 것은 거친 말과 채찍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친절하고 고운 말이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작가의 말에 공감한 적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말과 행동에 거침없던 자신에게 어느 어른이 꼭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첫째로 옳은 말인가, 둘째로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옳고 필요한 말도 태도가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일 공감했던 지점이 바로 세 번째인 친절한 말이었다. 얼마 전 내가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정의롭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며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추었다 해도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친절한 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방송한 작가 역시 요즘 친절하지 않은 말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역시 머리로 안다고 해서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험악한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가 상처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친다는 사실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피를 머금고 사람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含血噴人 先汚其口)."

몇 해 전 인문학 강좌로 〈명심보감〉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학인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대목이기도 하다. 남을 해치기 위한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이 모든 성현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숫타니파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도끼는 본래 나무를 잘라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다. 그런데 조준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입안의 도끼 역시 마찬가지다. 따뜻하고 친절한 말은 상대를 기쁘게 하지만, 험악한 말은 모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던가. 마음공부 잘해서 지혜가 깊어지면 '문수보살 게송'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읽을 때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된다. 정호승 시인은 '벗에게 부탁함'이라는 시에서 "벗이여 / 이제 나를 욕하더라도 / 올봄에는 / 저 새 같은 놈 / 저 나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다오"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이 시를 인용해서 본지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글을 읽은 어느 학인이 욕하고 싶을 때면 마음을 꾹꾹 다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저 문수 같은 놈.'

이런 욕이라면 매일 듣고 싶을 것 같다. 욕이 아니라 칭찬이니 말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언어가 단순한 정보나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라는 뜻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이의 품격인 셈이다.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을까? 비난보다는 칭찬을, 거친 말보다는 친절한 말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제 하나를 더해야겠다. 거친 말에는 소조차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